

고구려돌각담무덤의 연원

박사 부교수 리영식

1. 서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화유적과 유물은 우리 나라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의 발전상을 실물로 보여주는 귀중한 증거물이며 여기에는 우리 민족의 창조적지혜와 고유한 생활품습이 반영되어있습니다.》(《김일성전집》 제8권 395페이지)

조선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슬기롭고 문명한 민족이다. 우리 선조들은 고대시기의 우수한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고구려시기에도 발전된 문화를 창조하였다.

고구려돌각담무덤들과 선행무덤들과의 계승관계를 과학적으로 밝히는것은 우리 민족 문화의 독자성과 역사적전통을 옳게 해명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지난 시기 제국주의어용사가들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심히 외곡하고 깎아내리였으며 고구려는 2세기경에야 국가로 성립되었고 4세기 후반기에 이르러 봉건국가의 형태를 기본적으로 갖추었다고 하였다. 뿐만아니라 고구려의 무덤은 중원지방 한나라 무덤제도의 영향을 받아 발전한것이며 고구려의 우수한 무덤벽화도 중원지방 남북조시기 문화의 일부인것처럼 역사적사실을 전도하여 외곡하였다.

오늘 제국주의어용사가들과 대국주의사가들의 역사외곡행위는 계속되고있으며 특히 고구려초기의 돌각담무덤의 연원에 대하여 중원지방에서 살던 한나라 사람들 혹은 그 후손들이 압록강중류일대에까지 옮겨와 만들어놓은 문화에 바탕을 두고있는듯이 주장하고 있다.*

* 《고고》(중문) 2016년 5기 76~77페이지

이것은 역사적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그릇된 견해이며 조선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왜소화하고 고구려의 문화를 그 어떤 문화적영향의 산물로 취급하려는 비과학적인것이다.

선행연구자들에 의하여 《조선고고학개요》, 《고구려문화》 등 여러 도서들과 논문 《기원 4세기까지의 고구려묘제에 대한 연구》에서 고구려돌각담무덤의 연원이 강상무덤, 루상무덤을 비롯한 고조선시기의 돌무지무덤에 있다고는 서술되었으나 자료의 제한성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못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고구려초기의 돌각담무덤이 고조선의 돌무지무덤뿐만아니라 고대시기 우리 선조들이 축조하고 리용하던 묵방형고인돌무덤, 돌곽무덤, 돌관무덤 등 고대무덤들에 연원을 두고있다는것을 자료적으로 해명하여 고구려의 돌각담무덤이 고대조선주민들이 남긴 여러 무덤형식들에 연원을 둔것이라는데 대하여 밝히려고 한다.

2. 본 론

고구려문화의 발전면모를 보여주는 역사유적들가운데는 당시 사람들이 남긴 무덤이 있는데 바로 돌각담무덤과 돌칸흙무덤이 고구려의 대표적인 무덤류형이다. 여기서 돌각담무덤은 고구려건국초기부터 쓰이기 시작하여 대체로 5세기초까지, 돌칸흙무덤은 대체로 1~2세기경부터 나타나 고구려말기까지 기본무덤류형으로 존재하였다.

돌각담무덤은 고구려의 건국초기 및 전반기의 문화발전면모와 특성을 과학적으로 해명하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돌각담무덤은 주검매장시설과 무덤무지를 모두 돌로 쌓았다. 돌각담무덤은 대체로 둥글둥글한 강돌을 많이 리용하였으며 일부 산자갈이나 깎은 돌, 다듬은 돌들을 쓰기도 하였다. 돌각담무덤들은 무덤주인공의 계급신분관계와 재산소유정도에 따라 크기가 각이한데 태왕무덤과 같이 무덤무지 한변의 길이가 66m나 되는 큰 무덤들이 있는가 하면 한변의 길이가 5m정도밖에 안되는 작은 무덤들도 있다.

무덤무지는 옷부분이 둥그스름하게 쌓아졌으며 무덤무지평면은 원형, 방형, 장방형이다. 일부 규모가 큰 무덤들에는 무덤구역시설들이 있는데 무덤주위에 담(뚝)을 쌓거나 달린 무덤(배총)을 만들기도 하고 비석과 건물(주로 사원)을 세우기도 하였다. 무덤방향은 각이하나 서향, 서남향이 비교적 많다.

주검칸은 평면상으로는나 립면상으로 무덤무지의 중심부분에 위치하고있는것이 일반적이며 시기에 따라 그 높낮이가 변하였다.

고구려의 돌각담무덤에는 주검매장시설이 수혈식으로 된것과 횡혈식으로 된것이 있으며 한 무덤칸에 주검 하나를 묻은 단장(홀로묻기)무덤과 돌 또는 그이상을 묻은 합장(함께묻기)무덤이 있다. 또한 하나의 무덤무지안에 두개 또는 여러개의 무덤칸들을 나란히 배치한 쌍칸무덤, 여러쌍칸무덤들도 있으며 10여기의 무덤들이 차례로 잇달려있는 무덤들도 적지 않다.

돌각담무덤은 외부짜임새와 내부구조로부터 무기단돌곽무덤, 기단돌곽무덤, 계단돌곽무덤, 계단돌칸무덤, 돌칸돌무덤으로 구분할수 있다.

무기단돌곽무덤은 둥글둥글한 강돌이나 막돌로 원형, 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규모있게 쌓아올려 무덤무지를 만든것이다. 이 무덤은 외부평면짜임새에 따라 전형적인 구조를 가진 무기단돌곽무덤과 특이하게 방형의 계단시설이 달린 무기단돌곽무덤, 네모서리돌출형 무기단돌곽무덤으로 나눌수 있다.

전형적인 구조를 가진 무기단돌곽무덤으로는 자강도 시중군 심귀리75호무덤과 중국 집안의 하활룡8호무덤이다. 이 무덤들과 같은 형식의 무덤들은 압록강류역에 해당하는 자강도 시중군 심귀리, 로남리일대 고구려무덤떼들과 중국 환인, 집안일대 고구려무덤떼들에서 흔히 찾아볼수 있으며 그 수도 대단히 많다.

전형적인 구조를 가진 무기단돌곽무덤들은 구체적으로 무덤무지평면이 원형인것, 방형인것, 장방형인것 세가지로 갈라진다.

방형의 계단시설이 달린 무기단돌곽무덤은 무덤무지앞에 부대시설로서 돌을 깎은 구조물이 덧붙여있는 돌각담무덤이다. 이 무덤형식은 다시 원형의 무덤무지앞에 방형계단이

달린 무기단돌곽무덤과 방형의 무덤무지앞에 방형제단이 달린 무기단돌곽무덤으로 나누어볼수 있다.

원형의 무덤에 방형제단이 달린 무기단돌곽무덤(전방후원형 무기단돌곽무덤)으로서는 자강도 자성군 법동리 신흥2무덤떼의 8호무덤, 12호무덤과 초산군 운평리무덤떼 4지구 6호무덤을 들수 있다.

방형의 무덤에 방형제단이 달린 무기단돌곽무덤(전방후방형 무기단돌곽무덤)으로서는 자강도 만포시 연하리무덤떼 1호무덤과 미타리무덤떼 5호무덤을 들수 있다. 이 무덤들은 주검곽시설이 있는 무덤무지와 그앞에 설치된 방형의 제단이 하나로 잇달려있어 얼핏 보기에는 높이가 서로 다른 두개의 무덤이 맞붙어있는것처럼 보인다.

네모서리돌출형 무기단돌곽무덤(사우돌출형무덤)은 돌무지의 네모서리에 돌을 깐 시설이 돌출되어있는 특이한 구조의 돌각담무덤이다. 이러한 무덤류형으로는 자강도 초산군련무리2호무덤을 대표적으로 들수 있다.

고구려의 무기단돌곽무덤들은 점차 기단돌곽무덤으로 발전하였다.

기단돌곽무덤은 무덤축조기술의 측면에서 볼 때 무기단돌곽무덤에 비하여 한걸음 전진한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 무덤은 무덤무지둘레에 다듬은 큰돌들을 놓아 방형의 단을 쌓고 그안을 강돌 또는 자갈로 채운 다음 그우에 돌곽을 축조하고 돌로 무지를 덮어씌운 돌각담무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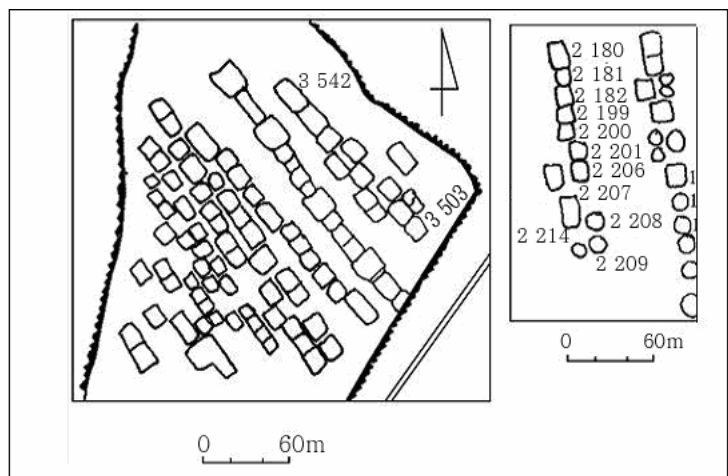
기단돌곽무덤은 특별히 큰돌들을 골라 다듬어서 무덤둘레에 1~2단의 기단을 쌓음으로써 무덤규모를 정연하게 하고 무덤무지에서 돌들이 흘러내리는것을 막기 위하여 목적의식적으로 개조발전시킨 형식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단돌곽무덤은 하나의 무덤무지안에 하나의 주검곽이 설치되어있으나 일부 무덤들에서는 하나의 무덤무지안에 두개의 무덤구덩이를 만들어 함께 묻기도 하였다. 그리고 기단돌곽무덤에도 무기단돌곽무덤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평면짜임새를 놓고볼 때 전방후방형무덤과 네모서리돌출형무덤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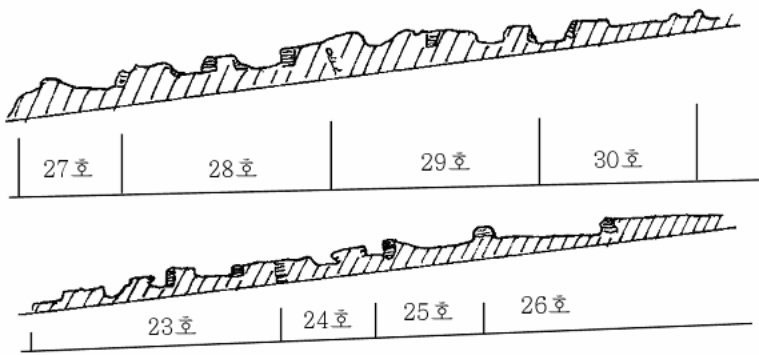
고구려의 기단돌곽무덤들가운데는 여러개의 개별적인 무덤무지가 서로 잇달려 축조된 무덤들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무덤들로는 집안 우산밀무덤떼 3 503호무덤으로부터 3 542호무덤까지의 잇달린 무덤들과 만보정무덤떼의 242호무덤, 우산밀무덤떼 2 180호무덤, 2 181호무덤, 2 182호무덤, 2 199호무덤, 2 200호무덤과 같이 잇달려있는 무덤들을 들수 있다.

이 무덤들은 두개이상의 개별적인 무덤들이 한쪽방향으로(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가면서 서로 벽을 잇대고 축조되어있다.



우산밀무덤떼의 잇달려 축조된 무덤들



고력묘자무덤의 잇달려 축조된 무덤들

무덤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집안 우산묘무덤에 분포되어 있는 3904기의 고구려 무덤들 중 돌각담무덤이 1455기인데 그 가운데에 잇달려 축조된 무덤수가 840여기로서 돌각담무덤수의 6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 《고구려연구문집》(중문) 연변대학출판사 1993년 80페이지

고구려돌각담무덤에서 주목되는 것은 잇달려 축조된 기단돌곽무덤들이 수적으로 많고 여러기의 무덤들이 결합되어 하나의 정연한 장방형을 이루며 구조와 결합방식이 특색 있는 것이다.

계단돌곽무덤은 계단위에 돌곽을 축조한 무덤으로서 무덤무지내부에 주검매장시설로 돌곽이 쌓여져 있다는 측면에서 무기단돌곽무덤, 기단돌곽무덤과 공통하다. 이 무덤은 기단돌곽무덤과 구조적으로 거의 같은데 다만 무덤무지밑부분에 3단 이상의 계단이 쌓여져 있는 것이 현저하게 구별된다. 계단돌곽무덤은 구조적으로 볼 때 무기단돌곽무덤이 기단돌곽무덤으로 발전하고 이어서 기단돌곽무덤의 구조에 계단시설이 보다 강조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계단돌칸무덤은 3단 이상으로 된 계단윗부분에 횡혈식의 돌칸이 축조되어 있는 돌각담무덤이다. 대표적인 무덤으로는 장군무덤, 태왕무덤, 천추무덤, 꺾음천정무덤, 우산1041호 무덤 등을 들 수 있는데 주로 집안일대에 집중되어 있다. 이 무덤들은 무덤무지가 매우 크고 외부 및 내부짜임새가 완성되어 있으며 천정구조와 여러 시설들이 정교하면서도 견고하게 만들어진 높은 급의 무덤들이다.

돌칸돌무덤들은 주검매장시설이 횡혈식의 돌칸으로 정연하게 쌓여지고 앞쪽으로 무덤안길이 달려 있다. 돌칸돌무덤으로서 대표적인 것은 고력묘자1호무덤, 13호무덤, 21호무덤, 대고력묘자31호무덤, 운평리 4지구 10호무덤, 미타리4호무덤 등이다. 이 무덤들은 구조상 고구려중기 및 후기에 주로 쓰인 돌칸흙무덤과 비슷한 측면들이 많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무덤무지를 이룬 재료가 흙이 아니라 돌이라는 측면에서 구별될 뿐이다.

돌칸돌무덤들 가운데는 하나의 무덤무지안에 주검칸이 하나인 무덤과 주검칸이 두 개 또는 여러 개인 무덤들이 있으며 이 무덤형식을 주검칸의 수에 따라 외칸무덤, 쌍칸무덤, 여러 쌍칸무덤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고구려 가장 이른 시기의 무덤형식은 돌각담무덤들 가운데서 무덤무지의 밑둘레에 기단이 없는 무기단돌곽무덤이다. 무기단돌곽무덤들은 압록강과 장자강, 혼강류를 중심으로

환인 고력묘자무덤 때에는 네 줄로 줄지어 70여m나 늘어선 수집기의 돌각담무덤들이 서로 잇달려 축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산성묘무덤, 만보정무덤, 칠성산무덤 등 집안일대의 여러 무덤들에서도 무덤무지가 잇달려 축조된 무

로 하는 넓은 지역 특히 고구려의 수도들이었던 환인과 집안일대에 집중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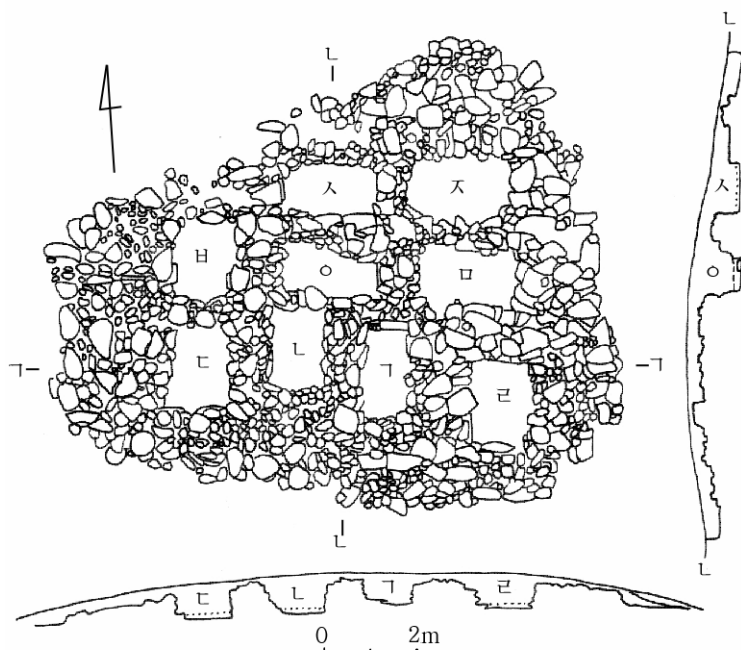
무기단돌곽무덤들은 선행시기의 돌무덤들과 구조와 장법에서 유사성이 많다.

고조선의 대표적인 돌무덤형식인 돌무지무덤은 고구려의 무기단돌곽무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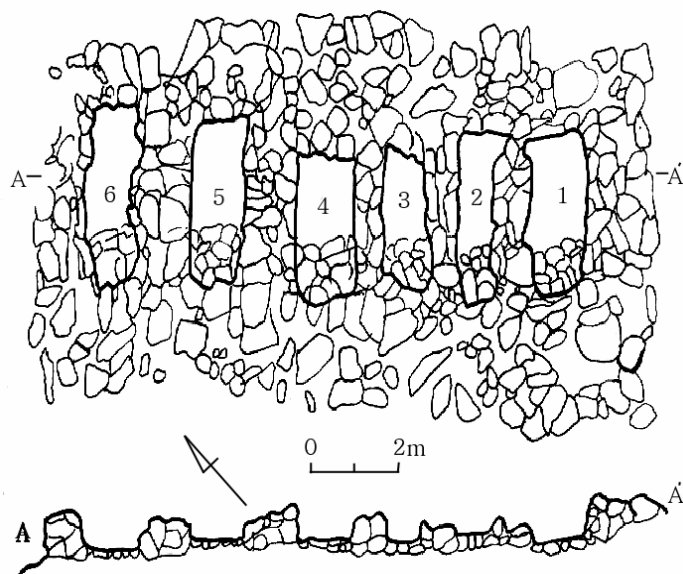
고조선의 돌무지무덤으로서 대표적인것은 장군산무덤, 로철산무덤, 사평산무덤, 강상무덤, 루상무덤, 와룡천무덤, 쌍타자무덤 등이다.

장군산무덤, 로철산무덤, 사평산무덤들은 막돌 또는 강돌로 커다란 돌무지를 이룬 무덤구역 안에 주검곽이 한개 또는 여러개가 들어있는 무덤들이다.

장군산무덤은 산등성이위에 위치하고있으며 파괴가 심하다. 대표적으로 1호무덤을 보면 크고작은 막돌들로 쌓았으며 평면생김새는 모가 죽은 삼각형이다. 무덤무지의 길이는 12m이고 너비는 5m이며 높이는 1m정도이다. 무덤무지안에 9개의 주검곽이 있으나 매 주검곽의 방향은 모두 서로 다르고 바닥에는 막돌을 깔았다.



장군산무덤 무덤칸배치도



로철산무덤매 1호무덤

로철산무덤매 1호무덤의 돌무지무덤에는 6개의 주검곽들이 나란히 배치되어있으며 로철산무덤매 4호무덤에는 9개의 주검곽들이 두줄로 질서있게 분포되어있다.

장군산무덤과 로철산무덤의 구조상특징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① 막돌로 돌곽을 쌓아만든 돌무지무덤이라는것.

② 주검곽은 수혈식으로서 장방형의 돌곽이라는것.

③ 주검을 합장할 때에는 선행한 무덤의 곁에 잇대여 축조한다는것. 그리하여 무덤무지의 길이가 70여m까지에 달하는것도 있다는것.

④ 주검을 안치할 때 지표면에

돌을 한벌 깔고 놓았기때문에 주검을 놓은 위치가 지표면보다 좀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는것.

⑤ 꺼묻거리로서 갈색간그릇과 검정간그릇을 묻었다는것.

강상무덤은 동서길이 100m정도의 언덕 한가운데에 위치하고있다. 무덤무지의 크기는 동서길이 약 28m, 남북너비 약 20m이며 장방형의 무덤구역테두리를 돌로 질서있게 쌓았다. 직경 30cm정도의 큰 막돌로 담을 쌓듯이 축조한 테두리는 높이가 1m가량 되었으며 테두리내부에 주먹만큰 돌들이 가득차있었다. 이 무덤구역의 내부에 판돌 또는 막돌로 축조한 무덤구덩이가 설치되어있었다.

무덤구덩이들은 등급상차이를 반영하여 분포위치와 크기, 평면 및 립면짜임새가 서로 달랐다. 무덤구덩이의 구조만을 보아도 바닥에 큰 판석을 깔것, 무덤구덩이우만을 판석으로 덮은것, 얇은 판석을 무덤구덩이벽에 세워놓은것, 무덤구덩이바닥에 진흙을 발라놓은것, 장방형의 구덩이를 파고 순 자갈로 무덤무지를 만든것 등으로 나뉘여진다.

강상무덤은 하나의 무덤무지안에 여러개의 무덤구덩이들이 설치되어있는 집합식무덤이라고 말할수 있다.

루상무덤, 와룡천무덤들도 전반적인 구조에서는 강상무덤과 같다고 말할수 있다. 오히려 강상무덤에 비하여 루상무덤, 와룡천무덤들이 구조적으로 보다 더 짜이고 정연한듯한 느낌을 준다.

료동반도에서 장군산무덤, 로철산무덤에 이어 발전하여온 강상무덤, 루상무덤의 축조상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무덤을 막돌로 축조하였다는것.
- ② 무덤칸을 장방형의 수혈식돌곽으로 만들었다는것.
- ③ 주검을 지상보다 높은 위치에 안치하였다는것.
- ④ 무덤위치를 둔덕진 곳이나 야산기슭에 잡았다는것.
- ⑤ 갈색간그릇가운데서도 입술형손잡이가 달린 그릇을 꺼묻거리로 하였다는것.
- ⑥ 여러개의 주검곽을 가진 무덤들도 있고 하나의 주검곽을 가진 무덤도 있다는것.
- ⑦ 화장한 흔적이 있는 무덤구덩이도 있고 화장한 흔적이 없는 무덤구덩이도 있다는것.

무덤무지안에 주검곽이 하나만 있는 형식의 돌무지무덤으로는 쌍타자무덤이 대표적이다. 이 무덤은 돌을 채취하는 과정에 드러난것이므로 구체적인 짜임새를 잘 알수는 없으나 평탄한 암반위에 판돌조각을 깔고 주검을 놓은 다음 막돌들을 무저쌓은 돌무지무덤으로 짐작된다. 이 무덤에서 비파형단검을 비롯한 고대시기의 유물들이 드러났다.

우에서 보는바와 같이 고조선시기의 돌무지무덤들은 무덤구덩이가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돌무지내부에 돌로 주검곽을 만들었다는 점, 주검을 우로부터 내리드리워 펴서 매장하였다는 점(수혈식의 전신장), 막돌 또는 강돌로 무덤무지를 덮었다는 점 등에서 고구려초기의 무기단돌곽무덤들과 통하는 측면들이 많다.

강상무덤, 루상무덤, 와룡천무덤, 쌍타자무덤 등 룡동지역의 돌무지무덤들은 그후 단동지역의 조가보무덤, 사평가무덤, 소진가무덤 등으로 이어지면서 발전하여갔다.

료녕성 관전현 조가보무덤, 사평가무덤, 봉성현의 소진가무덤들은 먼저 지면을 고른 다음 돌을 깔아 무덤구역을 만들고 그우에 돌곽을 축조하였으며 막돌들을 올려쌓아 무덤무지를 만들었다.

이 무덤들은 무덤구조에서 고구려초기의 무기단돌곽무덤들과 공통점이 많으며 그 축조년대를 B.C.4세기경으로 추정하고있다.

결국 이 무덤들은 시기적으로나 거리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고구려초기 무덤들에 매우 가깝게 접근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돌무지무덤들이 축조되던 시기 이 지역은 고조선의 령역으로 되어있었다. 그런것만큼 강상무덤, 루상무덤, 와룡천무덤들과 쌍타자무덤들에 이어 조가보무덤, 사평가무덤, 소진가무덤 등 고조선의 돌무지무덤들은 고구려초기 무덤의 발생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환인과 집안, 장백지역에서도 고구려초기 무기단돌곽무덤의 선행단계무덤으로 볼수 있는 고대시기의 돌무지무덤들이 알려졌다.

집안 태평구 오도령구문무덤은 산자갈들을 무저쌓은 형식의 무덤인데 산경사면에 위치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낮은쪽에 너비 2m정도 되는 단이 쌓아져있다.

일부 연구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 무덤은 산우에서 흘러내린 돌들이 자연적으로 쌓아진것을 리용하여 만든 무덤인데 이런 형식의 무덤들을 집안일대에서 적지 않게 찾아볼수 있다고 한다.*

* 《고구려연구문집》(중문) 연변대학출판사 1993년 89~97페이지

이 형식의 무덤들에서 낮은쪽 무덤무지의 아래부분에 쌓아진 기단형식의 돌시설들은 고구려돌각담무덤의 무덤무지밑부분에 비교적 큰돌들을 둘러 놓거나 기단, 계단을 쌓아주는 축조방법과 이어지는것이라고 볼수 있다.

오도령구문무덤에서는 좁은눗단검, 청동검자루, 청동창끝, 청동도끼, 날의 량쪽이 버선코모양으로 생긴 청동도끼, 청동거울, 도끼날형의 쇠활촉 등이 나왔다.

오도령구문무덤에서 나온 좁은눗단검이나 청동제품들은 모두 고구려이전시기의 유물들이며 도끼날형의 쇠활촉은 전형적인 고구려활촉과 그 형태가 꼭같은것이다. 결국 이 유물들은 오도령구문무덤이 고구려에 선행한 구려국시기의 무덤이며 또한 구려국시기의 문화가 그대로 고구려에로 이어져왔음을 명백히 알수 있게 한다.

환인의 대전자무덤도 돌무지무덤으로서 B.C.5~B.C.4세기경의것으로 편년되고있으며 구려국시기의 대표적인 무덤으로 인정된다.*

* 《료녕문물》(중문) 1981년 1기 27페이지

간구자무덤도 고구려초기의 무덤구조와 연원을 해명하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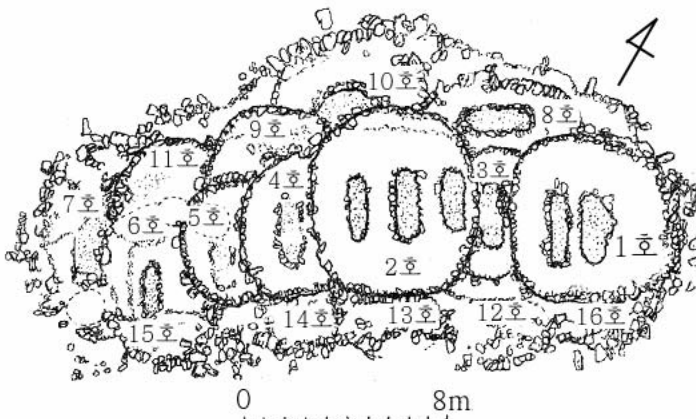
장백 간구자무덤떼는 길림성 장백현소재지에서 서쪽으로 45km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잡고있다.

이 무덤떼에 분포되어있는 무덤들의 일반적인 구조를 보면 몇개 혹은 10여개의 원형(반원형, 부채형 포함)기단무덤들이 잇달려 축조되어있다.

대표적으로 간구자무덤떼 1지구 2호무덤을 보면 무덤무지의 평면생김새는 타원형이며 긴축이 동북쪽에서 서남쪽으로 나있다. 이 무덤은 2개의 원형무덤에 14개의 반원형, 부채형무덤들이 사방으로 련결된 무덤이다. 무덤무지전체의 크기는 길이 22.5m, 너비 12.5m, 높이 2.1m이다.

원형으로 된 2개의 무덤은 무덤무지의 가운데와 동쪽에 치우쳐서 동서로 나란히 놓여있으며 그사이간격은 1.2m이다.

간구자무덤떼 1지구 2호무덤의 1호무덤은 전체 무덤무지의 맨 동쪽에 위치하고있다. 평면생김새가 원형이며 크기는 직경 6m, 높이 1.6m이다. 기단은 막돌로 테두리를 마련한 다음 그안에 강돌들을 채워넣어 수평을 맞추는 방법으로 축조하였다.



간구자 1지구 2호무덤

기단우에는 2개의 장방형주검곽이 동서로 나란히 놓여있다. 주검곽벽은 작은 강돌로 쌓았으며 바닥에는 강돌을 0.08m정도의 두께로 깔았다. 주검곽들의 크기는 길이가 대략 2.5m이고 너비는 0.6~1.2m이며 높이는 0.2m정도이다.

간구자무덤떼 1지구 2호무덤의 2호무덤은 전체 무덤무지의 가운데에

위치하고있다. 기단은 얇은 판돌과 납작한 강돌로 원형의 테두리를 만들고 그안에 강돌들을 채워넣어 수평을 맞추었다. 기단둘레에는 버팀돌이 세워져있다. 기단의 크기는 직경 6.5m, 높이 1.5~1.9m이다. 기단우에는 3개의 주검곽이 나란히 배치되어있으며 그 평면생김새는 장방형 또는 긴 타원형이다. 주검곽의 벽은 비교적 큰돌로 쌓고 바닥에는 작은 강돌을 0.08m두께로 깔았다. 가운데주검곽크기는 길이 2.5m, 너비 0.9m, 높이 0.2m이다. 동쪽과 서쪽의 주검곽들은 가운데주검곽보다 약간 작다.

간구자무덤떼 1지구 2호무덤의 무덤무지내부에는 원형무덤들인 1호무덤, 2호무덤들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하여 3호무덤부터 7호무덤까지의 반원형무덤들이 좌우로 편렬되어있다. 3호무덤은 1호무덤과 2호무덤사이에 끼여있다. 3호무덤의 기단우에는 1개의 주검곽이 설치되어있다. 주검곽벽은 강돌로 쌓고 바닥에는 0.1m정도의 두께로 강돌을 깔았다. 2호무덤의 서쪽으로는 4호, 5호, 6호, 7호무덤들이 반원형의 기단을 이루며 차례로 편렬되어있다. 여기에는 주검곽들이 대체로 1개씩 배치되어있으며 주검곽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원형무덤들과 반원형무덤들을 사이에 두고 8호무덤부터 11호무덤까지는 북쪽에, 12호무덤부터 16호무덤까지는 남쪽에 있으면서 서로 대칭을 이루고있으며 기단들의 생김새는 부채형이다.

간구자무덤떼 1지구 2호무덤에서는 불탄 사람뼈와 도끼조각, 푸른 구슬, 흰색의 대롱구슬, 가락바퀴, 반량전, 일화전 등 여러 유물들이 알려졌다는데 이에 근거하여 발굴자들은 무덤의 년대를 B.C.4세기~B.C.1세기로 추정하고있다.

고대시기의 고인돌무덤에서도 고구려초기 돌각담무덤과의 연관성을 찾아볼수 있다.

평안남도 개천시의 묵방리무덤떼에는 고인돌무덤들과 돌각담무덤들이 함께 분포되어있다. 시기를 달리하는 두 무덤류형들이 한지역안에 분포되어있는것은 서로의 계승관계를

반영하는 흥미있는 문제이며 보다 중요하게는 이곳의 고인돌무덤들과 돌각담무덤들 사이에 구조적인 측면에서 공통점이 많이 나타나고있는것이다.

례를 들어 고구려돌각담무덤의 특징가운데서 무덤곽이 지상에 놓여있고 무덤무지의 돌이 밀려나지 않게 버팀돌을 세운것 등은 목방리고인돌무덤의 특징을 이어받아 그것을 더욱 발전시킨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것은 고조선의 고인돌무덤과 고구려초기 돌각담무덤류형들사이에 일정한 계승관계가 있다는것을 반영한것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고대부여의 령역이었던 길림시 소달구에서 알려진 산정동1호무덤, 산저자1호무덤들은 구조상 판돌로 주검매장시설을 만든 돌관무덤들인데 부여의 이 돌관무덤들도 고구려의 무기단돌곽무덤들과 같은 점이 적지 않다. 고구려의 무기단돌곽무덤과 부여의 돌관무덤은 수혈식으로 주검을 매장하는 무덤들로서 그 장법이 서로 같고 장방형의 내부평면짜임새와 돌벽축조방식이 서로 공통하다.

고구려에 선행한 고대조선주민들이 리용한 여러 무덤들과 구체적으로 대비해보기 위해 고구려초기의 돌각담무덤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그 특징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수 있다.

① 고구려초기 돌각담무덤들은 축조재료가 강돌, 산자갈, 막돌들인데 압록강, 혼강 등 강류역에서는 강돌이 기본이고 산기슭이 가까운 곳에서는 산자갈과 막돌들이 많이 리용되었다.

② 초기의 돌각담무덤들은 대체로 강주변의 둔덕진 곳에 자리잡거나 산기슭의 룡선 끝에 있어 부침땅을 최대한으로 피하려는 경향이 뚜렷이 보인다.

③ 무덤의 외형상특징은 아래부분에는 장방형의 기단이 있고 그 윗부분은 방대형으로 쌓아올렸는데 무덤무지가 계단모양의 외형을 나타내는것도 있고 계단모양의 축조상태를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④ 주검을 안치하는 부분은 수혈식돌곽이며 돌곽바닥의 위치는 지표면보다 높고 첫기단면을 대체로 광실바닥으로 하였다.

⑤ 한개의 주검곽에 한사람을 묻는것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합장할 경우에는 같은 무덤무지안에 또 하나의 주검곽을 나란히 마련하였다.

⑥ 련속적으로 합장을 하는 경우에는 무덤들을 일직선상으로 그리고 산릉선에서부터 아래방향으로 내려가면서 잇달려 축조하였다.

⑦ 꺼묻거리로서는 작은 단지 두세개와 그밖에 무기류를 주검곁에 놓았으며 무덤주인공을 치레거리를 착용한 상태에서 묻었다.

⑧ 무덤을 잇달려 축조할 경우 먼저 만든 무덤의 한쪽(대체로 낮은쪽)기단을 헐어내고 거기에 덧붙여 《ㄷ》자형의 기단을 만들어주고 강돌 또는 산자갈로 무덤무지를 완성하였다.

⑨ 무덤무지의 우에서 불피운 흔적이 뚜렷이 나타나고 발굴과정에 불에 탄 뼈와 불에 그슬리거나 녹은 강돌들이 적지 않게 알려졌다.

고구려초기 돌각담무덤들의 특징들은 선행한 고대시기 돌무지무덤을 비롯한 여러 무덤들에서 찾아볼수 있으며 이것은 고구려주민들이 우리 나라 고대시기의 무덤형식을 그대로 계승하여왔다는것을 자료적으로 실증하여준다.

고구려초기의 돌각담무덤에서 강조하고 넘어갈것은 무덤무지의 우에서 알려지는 불

피운 흔적에 대한것이다.

고구려초기의 무덤발굴자료들에는 당대 사람들이 무덤을 축조한 다음 무덤무지우에 불을 피워올렸다고 인정할수 있는것들이 적지 않다.

자강도 자성군 서해리1무덤때 3호무덤의 무덤무지우에서는 발굴당시 적지 않은 개수의 불에 녹거나 그슬린 돌들이 알려졌으며 집안일대의 우산밑무덤때, 산성밑무덤때, 칠성산무덤때 등에서도 이러한 무덤들이 많이 알려졌다.

집안일대의 무덤들가운데서 1 000여기의 돌각담무덤들을 조사한데 의하면 350여기의 돌각담무덤들에는 무덤무지 옷부분의 움푹 패인 구덩이안에 불에 녹은 돌들이 있었으며 290여기의 돌각담무덤들에는 불길에 그슬린 붉은색계열의 돌들이 있었다고 한다.*

* 《고구려연구문집》(중문) 연변대학출판사 1993년 120페이지

그런데 불에 녹은 돌들이 있거나 불길에 그슬린 돌이 알려진 무덤들은 대체로 무기단돌곽무덤, 기단돌곽무덤들이었다.

고대시기에 해당하는 돌무덤 즉 산비탈에서 흘러내려쌓인 돌무지를 리용하여 만든 무덤(집안 오도령구문무덤과 비슷한 형태)들에서도 불에 그슬린 돌들이 알려졌다.*

* 우와 같은 책 114페이지

고구려 이른시기의 무덤들 즉 전형적인 수혈식의 돌각담무덤들의 돌무지우에서 불을 피웠던 흔적이 많이 알려지며 이러한 현상이 선행한 고대시기 돌무지무덤들 즉 강상무덤, 루상무덤, 간구자무덤들에서 나타난다는것은 고구려초기 무덤의 연원과 당시 사람들의 장례풍습을 밝히는데서 주목되는 문제이다.

고대조선주민들이 창조하고 널리 리용하여오던 돌무지무덤형식은 강상무덤, 루상무덤, 와룡천무덤, 쌍타자무덤들로부터 단동지역의 조가보무덤, 사평가무덤, 소진가무덤들과 환인의 대전자무덤, 집안 오도령구문무덤, 장백 간구자무덤으로 이어졌으며 그후 고구려초기의 무기단돌곽무덤으로 직접 이행하였던것이다.

고구려초기 돌각담무덤의 연원을 살펴보면 고조선, 구려, 부여의 여러 무덤형식들을 종합적으로 계승하면서도 고조선, 구려주민들의 돌무지무덤형식을 기본원류로 하여 발전시켜나갔다는것을 알수 있다.

동시에 고인돌무덤, 돌관 및 돌곽무덤형식들도 고구려초기의 돌각담무덤과 밀접한 련관속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고구려초기 돌각담무덤의 연원이 고조선, 구려, 부여 등 선행한 우리 민족의 고대국가들의 무덤형식에 있다는것은 고구려국가를 세운 주민집단이 바로 고대조선주민들의 후예들이라는것을 물질사료로써 뚜렷이 실증해준다.

3. 결 론

고구려무덤의 대표적류형의 하나인 돌각담무덤은 고구려의 건국과 초기력사를 과학적으로 해명하고 당시 사람들의 생활면모를 자료적으로 밝히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문화유산이다.

고구려돌각담무덤의 연원이 고조선시기의 돌무지무덤들인 장군산무덤떼, 로칠산무덤떼의 돌무지무덤들로부터 강상무덤, 루상무덤, 쌍타자무덤을 거쳐 단동지역의 조가보무덤, 사평가무덤, 소진가무덤으로 이어져왔으며 고구려초기의 주민들은 바로 고조선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리용하던 무덤형식과 장례풍습을 거의 그대로 계승하고 시대적요구와 생활풍습에 맞게 부단히 발전시켜나갔다고 말할수 있다.

집안 태평구에서 조사발굴된 오도령구문무덤은 고구려에 선행한 고대국가인 구려의 령역에서 알려졌고 무덤의 구조도 고구려초기의 기단이 없는 돌각담무덤과 거의 같으며 고대시기의 돌무지무덤에서 알려지는 좁은놋단검, 주머니식쇠도끼, 도끼날형활촉 등의 유물들은 고구려초기의 유물들과 공통성이 매우 강하다. 압록강중류의 장백 간구자무덤떼의 돌각담무덤들도 환인, 집안일대에서 조사발굴된 고구려초기의 돌각담무덤들과 구조에서나 매장풍습에서 같은 점이 많다. 이와 함께 선행시기 우리 선조들속에서 쓰이던 부여지역의 돌관 및 돌곽무덤과 고조선, 구려일대에서 널리 축조되었던 고인돌무덤들도 고구려초기의 돌각담무덤과 구조에서 완전히 차이나는 전혀 계통이 다른 건축물이 아니라 채질과 축조방식에서 유사성이 뚜렷한 건축구조물로서 바로 조선민족의 창조물이다.

이상의 내용들은 고구려초기의 돌각담무덤들이 선행한 조선민족의 고대국가들인 고조선, 부여, 구려문화에 뿌리를 두고있으며 고구려초기의 문화도 조선고대주민과 그 후손들의 직접적인 역할에 의해 높이 발전하여갔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실마리어 돌각담무덤, 고대무덤, 연원